

에덴

에덴뉴스

2019년 8월
통합 13-90호

03 에덴의 소식

에덴요양병원의
소식을 알립니다.

04 행복칼럼2019

류태희 목사가 전하는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

05 치유스토리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생생한 투병이야기

06 에덴 마당

화이팅릴레이/나도 시인
웃어보아요/칭찬합니다



Health News 건강소식

생활습관의학(Lifestyle medicine) 6

좋은 습관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습관은 오랜 시간 노력해야 형성되지만 어떤 습관은 작은 노력으로도 가능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다섯 번째 좋은 습관을 생각해 봅니다.

5 배설의 습관

음식물을 섭취하고 배설하는 것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섭취를 함에도 배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비는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는 일이 많거나, 덩어리지고 딱딱한 변이 나오며, 배변 후 잔변감을 쉽게 느끼고, 일주일에 3회 미만의 배변을 보며, 변비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묽은 변을 보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꾸준히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변비는 단순히 변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복부의 팽만감이나 통증 등으로 불편함을 주는데, 생활 습관의 교정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배변 습관 고치기

변비는 억지로 참지 않고 변이 마려운 순간에 화장실에 가고, 일정한 시간 동안 변기에 앉아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을 보기가 힘들다면 받침대를 활용해 15cm 정도 위로 다리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구불구불한 직장이 바로 펴지도록 해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 식습관 고치기

식이 섬유는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수분을 붙들어 두기 때문에 소화에 좋은 영향을 주고, 변이 굳은 상태로 나오지 않도록 해 줍니다. 전곡류,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하면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 수분 섭취량 늘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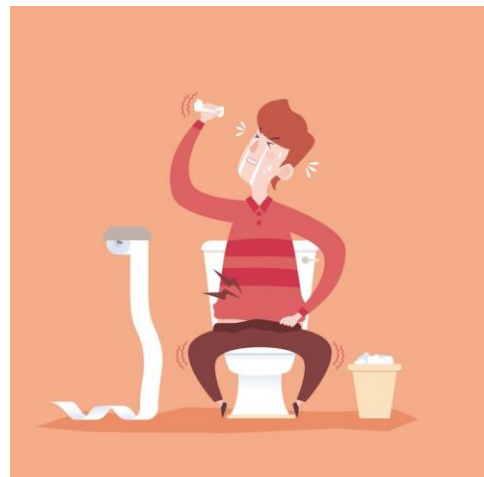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셔주는 것은 변비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적정량(몸무게(kg) X 33ml)의 물을 마시면 변이 딱딱하게 굳지 않는데 도움이 됩니다. 탄산음료나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배 안에 가스가 차고 체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순수한 물이나 동글레차, 보리차 등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반신욕 하기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반신욕을 꾸준히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장기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38~40℃의 물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반신욕을 즐기는 것은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시간은 20~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 일정한 기상시간과 아침 챙겨 먹기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들이면서 정해진 시간에 잠을 깊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신체리듬을 맞출 수 있어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NEWS 에덴의 소식

개원 18주년 기념행사



7월 3일, 개원 18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남혁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병원 경영이 여러 가지 여건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세계최고의 암 전문병원으로 우뚝 서도록 병원 전 직원이 협력 하자”고 권면했다. 또한, 이날 미션데이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친척, 지인들에게 ‘가족이 희망입니다’ 책자 발송작업을 했고 오후에는 병원 전 부서가 부서 실정에 맞는 시간을 정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책자를 전달했다.

환우 노래자랑

7월 17일 저녁, 환우노래자랑 행사를 진행했다. 오랜만에 진행된 환우노래자랑에 일곱 명의 환우들이 참가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실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찾아오는 공연보다 더 뜨거운 반응도 실감할 수 있었다.

감염관리의 날 행사

7월 17일, 감염관리의 날 및 손위생 이벤트를 QPS실 주관으로 진행했다. 강의 내용이나 감염과 관련된 퀴즈를 통해 재치와 순발력 있게 모두가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흥미 넘치는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에덴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적정성평가에서 2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적정성평가는 요양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한 평가로 이번이 7번째다.



‘통합의학 암치료 쉽게 이해하기’ 책자 발행

병원생활안내 및 치료안내 책자인 ‘통합의학 암치료 쉽게 이해하기’를 발간했다. 에덴요양병원의 생활습관방법과 각종 치료프로그램을 자세히 수록한 내용으로 환우들이 입원하여 치료받고 생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환우들의 입원생활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원동정

♥ 수고하셨습니다 ♥

최순금(영양과) 7월 31일 부

행복칼럼[23] 원목실장 류태희

“노아의 까마귀와 비둘기”

“사십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족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 들이고 또 칠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줄 알았으며 또 칠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 오지 아니하였더라”

(창 8:6~12)

복된 장마비 - 땅에 가뭄과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마비가 내린다. 산골짜기 계곡마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메말랐던 저수지에 물들이 가득 차오르며 하천과 강에 물들이 풍성하게 흐른다.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가고 정화되어 좋지만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는 지역도 있다. 지구상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때는 노아 당시로써 지구 전체가 1년 이상 물로 뒤덮여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생명체들이 멸망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1년간 그 안에서 생활하므로 구원받아 살아 남게 되었다. 땅에 물이 점점 줄어들고 높은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노아는 물이 감소한 여부를 알기 위해 방주의 창문을 열고 제일 먼저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 보냈다. 까마귀는 땅에 물이 마르기까지 온 땅을 방황하며 날아다녔지만 비둘기는 노아에게 다시 돌아와 희망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노아의 비둘기와 까마귀를 통해 배울 교훈을 알아보자.

1. 까마귀의 경우 : 사탄 마귀 역할의 상징

까마귀는 성경에 부정한 새로 지목되어 있으며 죽은 사람(동물)의 시체를 먹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아가 보낸 까마귀는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방황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방황하는 모습과 닮았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다니며 저기 다녀왔나이다”(욘 1:7)라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준다. 까마귀란 이름도 ‘까-마귀’(까만 마귀?)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 더욱 더 사탄의 상징으로 오해를 받을 만하다. 우리의 몸을 떠돌아다니는 암 세포들이 우리 몸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 암을 일으키는 모습 역시 사탄 마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 준다.

2. 비둘기의 경우 : 성도들의 상징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비둘기는 정결한 새로써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포함되어 있다(레 5:7, 12:8). 또한 노아 당시 방주에서 보낸 비둘기는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첫째, 집으로 다시 돌아옴 ⇒ 귀소본능 : 자기 집을 아는 비둘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 보냈다. 비둘기가 홍수로 인해 황폐된 땅 위를 날아다녔지만 아직 홍수로 인해 물이 덜 마르고 앉아 실 곳이 없었다. 그래서 비둘기는 자지가 떠난 집, 곧 방주로 되돌아오게 되었고 노아는 방주 안으로 비둘기를 영접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곧 천국이 있다. 때때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 돌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임을 잊지 말고 항상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둘째, 새 잎사귀를 물고 옴 ⇒ 주인에게희망의복음을전달하는비둘기 일주일 후에 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날려 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돌아왔는데 새 잎사귀를 본 노아는 땅의 물이 감소하고 있으며 새 생명들이 시작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비둘기는 별레나 다른 여러 가지를 물고 올 수 있었지만 노아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자기를 날려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자기의 해야 할 사명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으며 방주에서 나간다고 해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복음을 전달하였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중요한 사명들이 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부활하며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희망의 기별자가 되는 것이다.

셋째, 비둘기가 들어오지 않음 ⇒ 자립할 줄 아는 비둘기 또 다시 일주일 후에 날려 보낸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그 비둘기는 노아 가족들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여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건강한 삶을 위한 참된 치료제인 뉴스타트 생활하기,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파하여 함께 하늘나라 가기, 이웃 사람들에게 착한 일로 봉사하기 등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러한 삶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재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나는 비둘기처럼 살고 있는가? 까마귀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 모든 독자들은 까마귀처럼 세상을 방황하지 말고 지혜로운 비둘기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함께 가는 재림 성도가 되도록 하자.

2019 에덴 게이트볼 프리리그

경기 일정

- 접수 및 팀 등록 : 8/1~8/16
- 경기기간 : 8/19~9/27

경기방식

- 풀 리그

팀 구성

- 3인 이상(남자 1인 이하)

참가비 : 없음!

접수 및 문의 : 홍보기획과

후원 : 전봉수 장로님 외



게이트볼은 규칙이 이해하기 쉽고 도구가 간단한데다 운동량이 적당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스포츠이다. 게이트볼은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집중력과 판단력, 협동심, 인내심 등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및 두뇌회전에 도움을 주는 등 정신건강에도 유익한 운동이다.

8~9월 환우와 직원이 함께 하는 게이트볼 리그를 준비했습니다.

환우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새로운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칭찬합시다 COMPLIMENT

2층 간호사님을 칭찬합니다.
더울 때 쉬지도 못하고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간호사님들을 칭찬합니다.

- 114호 고영철



날개 없는 천사 이규현님을 칭찬합니다.
환자의 마음을 만지는 치료사님, 혼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시느라 바쁘실텐
데 환우의 작은 질문에도 성의껏 답
해주시고, 늘 환한 웃음으로 대해 주
셔서 감사해요~

- 112호 김순애

최철규님을 칭찬합니다.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
굴로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모습에서
환자들의 위로가 됨을 늘 봅니다. 감사
한 마음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 101호 임혜경



신강순님을 칭찬합니다.

오늘도 말 없이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일을 마치고 고단한 몸 힘들텐
데 웃는 모습으로 환자들의 필요를 채
워주시며 다독이시는 모습이 꼭 엄마 같
아 칭찬합니다.

- 3층병동 이영희



FOOD

우수 식재료 디렉토리

검은콩

대두는 콩과 식물의 종자로 콩이라고 통칭되기도 한다. '밭의 고기'라고 불리며 쌀에 부족한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공급원으로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콩의 발상지를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만주지역에서 삼국시대 초기부터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대두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간장이나 된장의 원료로 이용되고, 두부, 콩나물과 같은 필수 식품의 원천이다.



대두는 단백질(34.4%), 탄수화물(30%), 지질(18.6%) 등과 각종 무기질,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육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양질의 단백질이 많아 채식주의자들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의 역할을 한다.

또한 대두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여 뼈의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대두의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을 하며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불포화지방산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저하시켜주는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이다.

TODAY 따뜻한 하루

함께 있어 주고 싶다

처음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있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 주고 싶다.

- 이태석 신부 -



내전 중인 아프리카 남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
건강한 어른들도 하루하루 살기 힘든
와중에 힘없는 아이들은 당연하게도
방치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울지마 톤즈'는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사랑을 일깨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병원을 그리고 사랑을 세운 이태석 신부의 꽃이 그의 사후에 또다시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이태석 신부와 수단에서 함께하던 청년 '토마스 타반 아콧'과 '존 마엔 루벤'이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것입니다.

2009년 이태석 신부는 두 청년이 한국에서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 청년은 청소년 시기부터 의료봉사를 하는 이태석 신부 곁에서 약통을 들고 따라다녔고, 이태석 신부가 만든 브라스 밴드의 최초 단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온 기쁨도 잠시, 이들이 온 지 한 달여 후 이태석 신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청년은 이태석 신부의 사명을 잊지 않고 9년 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제대학병원에서 담당하게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토마스 타반 아콧은 외과 의사, 존 마엔 루벤은 내과 의사입니다. 이 두 명의 의사는 이제 자신이 배운 의술로 수단의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꽃을 피우며 전달됩니다.

FIGHTING 화이팅릴레이

외래간호사 이영미

야곱이라는 성경 속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나요?

쌍둥이로 태 속에서부터 싸웠으며 형의 발목을 잡고 아우로 태어났습니다. 형이 배 고플 때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으며, 어머니 리브가의 꼬임으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도망하게 되고 거짓과 비리로 가득 찬 인생이 시작됩니다. 도망하며 그의 심령을 누른 한 가지는 자기 죄가 자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공포심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기거하며 10번도 더 바꾸는 품삯과 속임수로 결혼을 시키는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지만 큰 딸 레아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고, 작은 딸의 시녀인 빌하에게서 두 자식을 낳았습니다. 큰 딸의 시녀 실바가 자식을 낳았고, 다시 레아가 두 자식을 낳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재산을 늘려 주지만 그때까지 사랑하는 라헬은 무자하였습니니다.

하나님이 무자한 라헬을 불쌍히 여겨 요셉을 주셨는데 야곱은 본토 고향으로 가고자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가진 것을 모르고 훔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맹세를 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사랑하는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며 사망하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 가는 야곱은 형이 노하며 자신을 죽일까봐 자기의 소유뿐 아니라 자식까지 중요하고 사랑하는 순서를 매겨가며 앞장 세웁니다.

‘어머니들의 질투와 참지 못해 싸우는 아들들을 보며 아버지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교외증언 5권 209P

또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겔에게 욕보임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으로 결혼 시킬 것같이 하다가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모두 멸하고 약탈합니다. 자식이 범죄를 하고 폐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 다른 아들들에게서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형 에서를 속인 자신의 거짓된 삶의 결정체는 아니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 의해 바로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네 곁에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 하는 것을 보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겔 16:6)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수 24:14)

자기가 살아 온 세월이 험하던 험하지 않던 그 경하고 중한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릴레이는 에덴직원들이 환우 여러분께 전하는 응원입니다.
이영미님이 지목한 다음 주자는 ‘천연치료실 신강순님’입니다.

나도 시인

생강나무꽃

芝堂 구정혜

산책로를 걸고 있는데

저만치 서서 쳐다보는 이 있다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하다

결혼 날짜를 받아 놓고

앞 진단 받은 예미 때문에

슬픈 결혼식이 될까봐 마음 졸이던 딸

서로 눈 마주치지 말자고

기쁜 날은 기쁜 것만 생각하자고 다짐하며

가발 쓴 나에게 슬펐 웃음 지어 보이던 내 딸

춘심월 하순, 꽃샘추위다

맹사한 바람이 뺨을 후리더니

허공이 캄캄하도록 눈발이 날린다

삼시간에 꽃 위에 맑시린 눈이 쌓여

생강나무꽃 울상이다

딸아, 살라 보면

상처 없는 나무가 없듯이

땃하지 않은 굴레가 있고 벽도 있단다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지만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유럽 여행 갔던 문우도

한창 농사일에 바쁜 시골 친구들도

만사 제치고 축하해주시

난 이만하면 잘 살았다



편집후기

사람마다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경우 작은 소리,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한 반면 어떤 분들은 조금 큰 소리나 움직임에도 무반응이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을 대하는 환우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일상에 별 영향을 안 받는 듯 여유로운 분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늘 한결같은 평안함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 에덴뉴스 편집장 행복돌쇠

에덴요양병원은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홈페이지 www.edenah.com
- 블로그 blog.naver.com/edenah
- 유튜브 www.youtube.com/user/TVEdenah
- 페이스북 www.facebook.com/Edenhospital
- 트위터 twitter.com/Edenhospital

검색창 에덴요양병원 ▼

절취선

숨은 그림 찾기



이름 : _____ 호실 : _____ 호 _____

- ♥ 숨은그림찾기 정답과 칭찬의 글을 원무과로 보내주시면 매월 1분씩 추가하여 매점상품권을 드립니다.
- ♥ 접수마감일은 8월 25일이고, 숨은그림찾기 정답과 칭찬의 글을 모두 작성하면 당첨확률이 높아져요.
- ♥ 지난 호 당첨자
112 김순애, 112 정순자

(_____)님을 칭찬합니다.

칭찬사연을 자세히 남겨주세요

